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발의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 정문 모습.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라운드 테이블’

내년 광주비엔날레 주제 확정

내년에 열리는 제9회광주비엔날레의 주제가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로 정해졌다. ‘라운드 테이블’은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주제로 국가, 이념, 사회, 문화적 차이를 넘어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주제 설정 배경, 전시 구성, 추진 방향 등 전시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김선정 책임 공동예술감독은 “이번 전시는 세계 곳곳의 현상들을 반영해 각자의 다른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시대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또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시뿐만 아니라 일련의 워크숍, 전자 저널, 레시던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넓어 내게 된다. 전시 주제가 ‘융합’의 의미가 강한 ‘라운드 테이블’인 만큼, 전시 준비 과정도 하나의 예술 행위로 보고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2012년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66일 동안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문의 062-608-423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공군 비행장 이전 가시화

국회 특별법 발의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8년 숙원 해결 기대

도심지 근 공항 이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8년여 동안 지지 부진했던 광주 공군 비행장 이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군용 비행장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의원 모임 소속 광주지역 김동철·이웅섭·조영택·김영진 의원과 ‘민주당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 대책위’는 25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김동철(민·광주 광산 갑)·김진표(민·수원 영통구)·유승민(한·대구 동구 을)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국방부가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을 여야 의원 입법 형태로 공동 발의했다”며 “8년 동안 지지부진해 왔던 군 비행장 이전이 조

만간 현실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법은 26일 국회에 제출돼 내년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특별법안이 준비과정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차관회의를 마쳤고,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 국방위원회의 핵심 현안인 ‘국방개혁안’과 함께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2월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 대상에는 광주를 비롯한 대구·수원·청주·강릉 군 공항 등이 해당된다. 특별법 핵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최종 부지는 국방부장관이 후보지 관할 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또한, 국방부장관과 기존 부지 지

방자치단체장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8년여 동안 지지 부진했던 광주 군 비행장 이전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 선정 문제와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광주 군 비행장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발 등

도 예상된다. 김동철 의원은 “여야 합의를 국방부 협의까지 거쳐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내년 2월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군 비행장 이전을 위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지역주민 모두의 뜻과 역량을 합쳐 반드시 18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이희호·현정은 오늘 조문 방북

1박 2일 일정...김정은 만남 여부 주목
北 “남측 모든 조문사절단 받아들일 것”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89)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56)이 2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조문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관련기사 3면> 이들은 이날 오전 10~11시께 차량을 통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뒤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향할 예정이다. 남측 차량으로 북측 CIQ인 통령검문소까지 이동한 뒤 평양까지는 북측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문은 방북 첫날 이뤄질 예정이며, 상주인 김정은 북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의 만남 여부가 주목된다. 조문단은 방북 둘째 날인 27일 오전 평양을 출발해 개성을 거쳐 귀환할 예정이다.

이 여사 측은 현 회장 측과는 별도로 귀환 중간에 개성공단에 들러 입주기업 2~3곳을 둘러본 이후 귀환할 계획이다. 조문 방북단은 이 여사 측 13명, 현 회장 측 5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이 여사 측에서는 이 여사와 아들 흥업, 흥결씨, 큰며느리, 장손 등 김 전 대통령 유족 5명과 이 여사 수행원 및 주치의, 경호관을 포함 8명으로 이뤄졌다. 현 회장 측은 장경작 현대자산 대표, 김영현 현대자산 관광경영본부장(상무) 등 현대자산, 현대그룹 임직원 4명이 현 회장을 수행한다. 박지연 민주통합당 의원과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정치인은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문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또 이들 민간 조문단의 원활한 조

문과 연락채널 확보 등을 위해 동행할 예정이었던 정부 실무진도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북한의 대남접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3일 ‘우리의 해당 기관들에서는 조의방문을 희망하는 남조선의 모든 조의대표단과 조문사절들을 동포애의 정으로 받아들이며 개성육로와 항공로를 열어놓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조문하는 남측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2년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가군
[원서접수] 2011.12.22(목)~27(화)
입학문의 (062) 605-1114
2012년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2.01.16(월)
입학문의 (062) 605-1112, 1023
www.kwangshin.co.kr

MUSEO 뮤제오

광주를 리더하는 특별한 분을 위한 약속-

이태리의 정통 명품 수입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은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도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쁨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신세계백화점 금호빌딩
이태리 명품수입가구 & 소품 / 샵부지
MUSEO 뮤제오
뮤제오 동성역 동성교차로 KB 국민은행 상륙점
동성역 동성교차로 상륙점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이태리 명품브랜드 취급사 점보 / 프르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자날레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이트 웨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